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2 CHICKEN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hicken」 (원서 PDF 94~99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채식주의자에게 닭을 주는 평등은 왜 공정하지 않은가."

이 장은 저자가 직접 만든 요리, 채소와 함께 구운 하리사 치킨으로 시작한다. 숭배도 경멸도 받지 않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먹는 듯한 '보편적인 고기' 닭은 그래서 항공사의 기내식이 되는데, 저자는 채식주의자 승객에게도 닭고기만 내주며 '모두가 평등하니 특별 대우는 없다'고 한 소련 시절 Aeroflot 승무원의 일화를 들려준다. 이야기는 여기서 평등과 공정의 문제로 넘어가,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사회주의식 평등도, 경제에 대한 기여에 따른 보상만 내세우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공정도 시야가 좁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공정한 경쟁에 기회의 평등이 결정적이지만, 외다리 주자가 낀 경주가 공정하지 않듯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히 높은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며, 불평등 논쟁은 결과와 기회만 보느라 필요와 능력을 놓쳐 왔다고 말하며, 채식주의자에게 닭을 주는 항공사도 극소수만 탈 수 있는 비싼 항공사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글을 맺는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장(도토리)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불평등 논쟁은 결과와 기회만 보고 필요와 능력을 놓쳤다(98쪽 ¶3) / 다른 필요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조건(95쪽 ¶5) /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98쪽 ¶1) /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이다(97쪽 ¶2)
4~5	**밑줄 함축 의미**	Poor chicken / the universal meat / taken this policy to the extreme / Everybody's equal on Aeroflot / There's no special treatment / an equal footing / an equally blinkered view / equality in poverty / 'voluntarily' /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 the race of life / a ticket that few of us can afford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저자의 인도인 친구와 채식주의자 승객 사이를 오가는 94쪽 ¶4~95쪽 첫 줄 / it(94쪽 ¶1 = chicken) / which(94쪽 ¶3 = airlines) / them(96쪽 첫 줄 = 채식주의자 · 셀리악병 환자 · 여성) / they(96쪽 ¶2 = 자유시장 경제학자) / those(97쪽 ¶1 = '여성적' 과목) / they(98쪽 ¶1 = all children)
7~8	내용 일치·불일치	Aeroflot 일화(94쪽 ¶4~95쪽 첫 줄) /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아파르트헤이트(96쪽 ¶5) / 저자의 대학 시절(97쪽 ¶1) / 1980년대 말 · 1928~35 · 1946~8 · 1871 · 1920 · 1948 · 1980년대 초 · 6명/360명 · 11명/1,200명 · 50% · 36% · 38% · 5~10% · 30% · 15% · 3~4파운드
9~10	**어법**	Neither + 도치 · 대동사 do · of whose · a friend of mine · used to V · overhear + O + 원형 · 동격 that · whether A or B · Not only 도치 · 동명사 주어 · hence + 명사구 · respectively · albeit · let + O + 원형 · not A until B · 가목적어 it · if not · 과거완료 수동 · may have p.p. · have + O + p.p. · require that + 원형 · neither +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venerate↔despise · docile↔unruly · obstinate↔compliant · diverge↔converge · even-handed↔biased · blinkered↔broad-minded · counter-productive↔productive · trivial↔significant · abolish↔establish · rampant↔rare · deprived↔privileged · neglect↔attend to
12	빈칸 추론	rewarded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96쪽 ¶3) / equality of opportunity(96쪽 ¶4) / not giving them special treatment(95쪽 ¶5) / the minimum necessary capabilities(98쪽 첫 줄)
13	문장 삽입	기본 욕구 단락(95쪽 ¶2~¶3): 심각한 문제 → 같은 기본 욕구 인정 → 봉건 ·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발 → However, 기본을 넘어서면 필요가 갈라진다
14	무관한 문장	기회의 평등과 같은 규칙(97쪽 ¶2~¶4)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힌두교도 · 한국인이 꺼리는 고기, 94쪽 ¶1)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빵의 예(95쪽 ¶4): 주식인 빵 → 심각한 식량 부족 때 같은 양은 공정해 보임(1928~35 · 1946~8) → However, 발효 밀빵은 못 먹는 사람 → For another example, 같은 크기의 화장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길(98쪽 ¶2): 시장 규제(소농 · 소상점 보호, 금융 · 노동 시장 규제) → 그러나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더 효과적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나라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80년대 말(Aeroflot 일화) · 1928~35(소련의 식량 부족) · 1946~8(영국) · 1871(비국교도) · 1920(옥스퍼드의 여성 학위) · 1948(케임브리지) · 1980년대 초(저자의 대학 시절) · 6명/360명 남짓(경제학과) · 11명/1,200명 넘게(공학부) · 50% · 36% · 38% · 5~10%(각주 iii) · 30%~40% · 15%(각주 iv) · 3~4파운드(1.5~2kg). 1920은 옥스퍼드, 1948은 케임브리지가 여성에게 학위를 준 해다. 나라와 인물도 많다(Aeroflot · 모스크바 · 마오의 중국 · 크메르 루주 · 아파르트헤이트 · 키프로스 · 덴마크 · 러시아 · 스위스 · 한국 · Aldous Huxley).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숭배 ↔ 경멸, 소 ↔ 돼지, 1920 ↔ 1948,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6명 ↔ 11명, 공식 규정 있음 ↔ 없음, 기회의 평등으로 충분 ↔ 부족, 시장 규제 ↔ 복지국가가 더 효과적, 좌파 = 결과 ↔ 우파 = 기회). 전언 · 추측(Apparently · seems to · may be partly · may even be · I am told · perhaps)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argue · opine · assert · they say)을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hicken」 (94~98쪽)

논증형(가엾은 닭 → 보편적인 고기 → 항공사의 닭 → Aeroflot의 '특별 대우는 없다' → 소련식 평등 원칙 → 같은 기본 욕구와 갈라지는 필요 → 빵 · 화장실 → 다르게 대하기 = 공정의 조건 → 반대편의 자유시장 경제학자 → 기여에 따른 보상 →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 → 공식 · 비공식 차별 → 외다리 주자의 경주 → 결과의 평등 → 시장 규제와 복지국가 → 결론: 필요와 능력을 놓친 불평등 논쟁). 핵심 축은 **같은 대우 vs 필요에 따른 대우**, 그리고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4 ¶1	도입	가엾은 닭 / 숭배도 경멸도 제대로 된 미움도 받지 않음 / 고기를 먹는 사람은 닭도 먹는 것 같다
94 ¶2	보편적인 고기	작고 온순해 존재감이 낮음(일부일 수도) / 주로 다양한 쓰임 · 무난한 맛 · 쉬운 조리 / 온갖 요리법
94 ¶3	항공사의 선택	좁은 공간에서 온갖 취향 · 금기를 맞춰야 해 닭 / Aeroflot는 소련 시절 이를 극단까지(것 같다)
94 ¶4~95 첫 줄	Aeroflot 일화	1980년대 말 인도인 친구 · 모스크바 경유 · 가장 싼 표 / 채식주의자 승객 → '모두 평등, 특별 대우 없음'
95 ¶1	소련의 원칙	모두가 똑같이 귀한 인간 → 똑같이 대우 · 같은 배급 / 98쪽 각주 i: 실제로는 격차 · 엘리트 특혜
95 ¶2~¶3	문제 제기	같은 기본 욕구 → 봉건 · 자본주의 사회 고발 / 그러나 기본을 넘어서면 필요가 갈라진다
95 ¶4	빵과 화장실	식량 부족 때 같은 빵(1928~35 · 1946~8) / 발효 밀빵 · 같은 크기의 화장실 = 불공정
95 ¶5~96 첫 줄	공정의 조건	다른 필요를 다르게 대하는 것 =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조건 · 대등한 위치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6 ¶1	반대편	자유시장 경제학자도 똑같이 시야가 좁다(방식은 완전히 다름)
96 ¶2	그들의 진단	비슷한 보수 → 유능한 사람에게 불공정 · 의욕 저하 → 빈곤 속의 평등
96 ¶3	그들의 처방	능력껏 경쟁 · 결과 수용 → 가장 생산적 · 가장 공정(기여에 따른 보상)
96 ¶4~¶5	전제 조건	기회의 평등 /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 /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1871 · 1920 · 1948) · 아파르트헤이트
96 ¶6~97 첫 줄	오늘의 차별	공식 차별은 대부분 폐지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없음 / 직장의 여성 · 인종 차별
97 ¶1	자발적 회피	'남성적' 과목 / 저자의 동기 360명 남짓 중 여학생 6명 · 공학부 1,200명 넘게 중 11명
97 ¶2	기회의 평등	능력과 무관한 특성으로 막히면 결과는 생산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음 ·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
97 ¶3~98 첫 줄	외다리 주자	같은 기회 · 같은 규칙이어도 부족 / 최소한의 능력 없으면 기회의 평등은 무의미
98 ¶1	결과의 평등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 → 기르는 사람들의 처지 차이가 작아야 → 상당한 결과의 평등
98 ¶2	이루는 방법	시장 규제(스위스 · 한국) / 더 효과적인 것 = 복지국가의 재분배
98 ¶3~¶4	결론	좌파는 결과만 · 우파는 기회만 → 필요와 능력을 놓침 / 두 항공사 모두 싫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닭의 대접	숭배받는 동물 – 힌두교도의 소	경멸받는 동물 – 무슬림 · 유대인의 돼지(닭은 어느 쪽도 아님)
Aeroflot	단점 – 편안함 · 시간 엄수 · 승무원 태도 등 모든 면에서 형편없음(이라고 한다)	장점 – 표가 단연 가장 쌈
소련의 평등	이론 – 장관이든 청소부든 같은 배급 · 특별 대우 없음	실제(98쪽 각주 i) – 상당한 임금 격차 · 정치 엘리트의 특혜
사람의 필요	기본 욕구 – 깨끗한 물 · 안전한 거처 · 영양 있는 음식(모두 같음)	기본을 넘어선 필요 – 꽤 빨리 갈라짐
같은 대우의 예	공정해 보임 – 식량 부족 때 같은 빵 · 같은 크기의 남녀 화장실	실제로는 불공정 – 셀리악병 · 유월절 · 여자 화장실 밖의 긴 줄
다르게 대하기	승무원의 생각 – 특별 대우	저자 –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 대등한 위치에 세우기
정치적 스펙트럼	사회주의자 – 모두를 똑같이 대함	자유시장 경제학자 – 기여에 따른 보상(똑같이 시야가 좁음)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	좁은 범위의 보수 – 불공정 · 역효과 · 빈곤 속의 평등	능력껏 경쟁 · 결과 수용 – 가장 생산적 · 가장 공정
차별의 형태	공식적 –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에 따른 제한(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아파르트헤이트)	비공식적 · 스스로 부과한 – '남성적' 과목을 '자발적으로' 피함
공정한 경주	같은 출발선 · 같은 규칙	최소한의 능력(외다리 · 한쪽 눈이 먼 주자는 불공정) · 각주 vi: 패럴림픽 · 체급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길	시장 규제 — 소농 · 소상점 보호(스위스 · 한국) · 금융 · 노동 시장 규제	복지국가의 재분배 — 직접 소득 이전 · 양질의 기본 서비스(더 효과적)
불평등 논쟁	좌파 — 결과의 평등만 · 필요와 능력의 차이를 무시	우파 — 기회의 평등만 · 능력의 평등에 부모 세대의 결과 평등이 필요함을 모름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hicken ([제목])	Grilled harissa chicken with vegetables(저자의 요리) · 닭 · 가지 · 애호박 · 양파를 하리사 · 올리브유 · 소금에 재운 뒤 구움
닭의 대접	숭배하는 문화도(힌두교도의 소처럼) 깎아내리는 문화도(무슬림 · 유대인의 돼지처럼) 저자는 알지 못함 · 제대로 미움받지도 않음
취향으로 피하는 고기	힌두교도 =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흔히 안 먹음 · 많은 한국인 = 금기가 없는데도 양고기를 안 먹음
보편성의 까닭	작고 비교적 온순한 새 → 낮은 존재감(일부일 **수도**) / 주로(**틀림없이**) 단백질원의 다양한 쓰임 · 무난한 맛 · 조리의 쉬움
닭 요리	튀김(미국 남부 · 일본 tori kara-age · 한국 yangnyum chicken) · 지짐(중국 · 태국 등) · 스튜(coq au vin · 북아프리카 tagine) · 구이(유럽 로스트 · 남아시아 tandoori) · 불구이(말레이 · 태국 satay · 아프리카-포르투갈 piri-piri) · 훈연 구이(자메이카 jerk) · 삶기(한국 sam-gye-tang · 유대인 치킨 수프) / 일본의 닭 요리 전문점에서 닭 사시미
항공사	좁은 공간에서 온갖 취향 · 금기를 맞춰야 해 닭을 고름 / Aeroflot(러시아) = 소련 시절 이 정책을 극단까지 밀고 간 **것 같다**(원서 표기 have had taken)
Aeroflot 일화	**1980년대 말** 저자 = 케임브리지 대학원생 · 인도인 친구 · 모스크바 경유 / 모든 면에서 형편없었다**고 한다** · 표가 단연 가장 쌈 · 기내식은 닭뿐(친구의 말)
승무원의 말	채식주의자 승객에게: 안 된다 · 모두가 평등 · 사회주의 항공사 · 특별 대우는 없다
소련의 원칙	모두가 똑같이 귀한 인간 → 똑같이 대우 / 장관 · 의사 · 광부 · 청소부 = 같은 빵 · 설탕 · 소시지 배급 · 해마다 신발 한 켤레 · 집단 공급
98쪽 각주 i	이론일 뿐 · 상당한 임금 격차(자본주의 나라보다는 훨씬 작음) · 정치 엘리트 = 더 나은 집 · 특별 상점(흔히 수입품) · 자본주의 나라 여행(사치품 구입)
기본 욕구	깨끗한 물 · 안전한 거처 · 영양 있는 음식 / 사회주의 원칙 = 봉건 · 자본주의 사회(굶어 죽는 사람 · 사치에 빠진 사람)에 대한 중요한 고발
빵	주식 · 심각한 식량 부족 때 같은 양은 공정해 보일 수 있음(소련 농업 집단화 뒤 **1928~35** · 영국 2차 대전 뒤 **1946~8**) / 발효 밀빵 = 셀리악병 환자 ·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은 못 먹음(**아마도**)
화장실	인구의 대략 절반이 남성 · 절반이 여성 → 같은 크기는 공평해 보임 / 여성은 시간 · 공간이 더 필요 → 영화관 · 공연장 등의 긴 줄
공정의 조건	다른 필요를 다르게 대하기 = 특혜가 아님 ·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 채식 기내식 · 글루텐 없는 빵 · 더 많은 여자 화장실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	사회주의는 비슷한 보수로 실패(저자: 마오의 중국 · 크메르 루주의 캄보디아 외에는 '똑같지' 않았음) /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 외과의 · 연예인 = 큰 기여 / 빈곤 속의 평등 · 능력껏 경쟁 → 가장 생산적 · 가장 공정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기회의 평등	기여에 따른 보수 원칙의 전제 조건 · 사소하지 않음 / 과거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에 따른 교육 · 직업 제한(「Acorn」)
Oxford · Cambridge	비국교도(가톨릭 · 유대인 · 퀘이커) **1871년**까지 불허 · 여성 학위 **1920**(옥스퍼드) · **1948**(케임브리지) / 99쪽 각주 ii: 더럼도 1871년 뒤 · 여성은 19세기 말부터 공부는 허용
Apartheid	남아프리카 · 흑인과 '유색인'(혼혈을 가리키는 아파르트헤이트 용어) = 재정 부족 · 과밀한 비백인 대학 → 괜찮은 일자리 거의 불가능
오늘의 차별	공식 차별은 대부분 폐지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룬 나라는 없음 / 직장의 여성(성차별적 시각) · 모든 다인종 사회의 인종 차별
저자의 대학 시절	한국 · **1980년대 초** · 경제학과 360명 남짓 중 여학생 **6명** · 공학부 1,200명 넘게 중 **11명** / 99쪽 각주 iv: 지금 경제학과 **30%** 넘어 40%에 가까움 · 공학부 **15%** 안팎
99쪽 각주 iii	공학 졸업생 중 여성: 키프로스 **50%** · 덴마크 **36%** · 러시아 **38%** · 한국 · 일본 **5~10%** (UNESCO)
legacy students	미국 대학 · 부모나 조부모가 다닌 대학 입학에서 유리 → 규칙은 흔히 조작된다
99쪽 각주 vi	패럴림픽 · 성별 · 연령 · 체급(복싱 · 레슬링 · 태권도 · 역도) / 가벼운 체급 복싱의 체중 범위 **3~4파운드(1.5~2kg)**
결과의 평등	모든 아이 = 영양 · 의료 · 교육 · 놀이 시간 / 집단 탁아소(Aldous Huxley『Brave New World』 · 오늘날 북한 — 엘리트용 더 좋은 탁아소가 있다**고 들었다**)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길	시장 규제 = 스위스 · 한국의 소농(농산물 수입 제한) · 소상점(대형 유통업체 제한) 보호 · 금융 규제 · 노동 시장 규제(최저 임금 · 병가 수당) / 더 효과적 = 복지국가의 재분배(「Rye」)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hicken」 (원서 PDF 94~98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2-1 모두가 먹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닭 94쪽 ¶1~¶3

원문 위치 원서 94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제목]	Grilled harissa chicken with vegetables (my recipe)	저자의 요리 — 하리사에 재운 닭 · 채소 구이
◆	94쪽 ¶1 첫~둘째 문장	Poor chicken. No one takes it seriously.	동사 없는 첫 문장 · 목차의 부제(no one takes seriously)와 연결
▲	94쪽 ¶1 셋째 문장	I know of no culture which venerates it, as Hindus do the cow	대동사 do(= venerate) · 어휘(venerate)
▲	94쪽 ¶1 넷째 문장	Neither is there a culture that denigrates it, in the way Muslims and Jews do the pig	Neither + 도치 — 어법 1순위
◆	94쪽 ¶1 다섯째 문장	Chicken is not even disliked properly	밑줄 의미 — 미움받을 존재감조차 없음
★	94쪽 ¶1 여섯째 문장	not out of religious or cultural taboos but out of distaste – Hindus can but often won't eat pork, while many Koreans simply won't eat lamb	not A but B · 예시 — 일치
★	94쪽 ¶1 일곱째 문장	anyone who is willing to eat meat seems willing to eat chicken	추측(seems) — 보편성
◆	94쪽 ¶2 첫 문장	may be partly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profile of the creature itself – a small, relatively docile bird	추측(may be partly) · 어휘(docile ↔ obstinate)
★	94쪽 ¶2 둘째 문장	it must mainly have to do with its versatility as a source of protein, with its rather neutral taste and with the relative ease of cooking	까닭 세 가지 · 어휘 문항의 바탕
★	94쪽 ¶2 셋째 문장	cooked in every conceivable way – deep-fried … stewed … roasted … flame-grilled … smoke-grilled … boiled … you name it	요리법 짝 맞추기 — 일치 함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2 넷째 문장	a restaurant in Japan, every single one of whose dishes was made with chicken	of whose · 단수 동사
★	94쪽 ¶3 첫 문장	Given its status as the universal meat, it is not a surprise that chicken is the choice of airlines	Given ~ · 가주어 it · 지칭(which = airlines)
◆	94쪽 ¶3 둘째 문장	Aeroflot … seems to have had taken this policy to the extreme during its Soviet days	추측 · 원서 표기 have had taken · 일화로 잇는 고리

내용

가엾은 닭. 아무도 닭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힌두교도가 소를 숭배하듯 닭을 숭배하는 문화를 저자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무슬림과 유대인이 돼지를 깎아내리듯 닭을 깎아내리는 문화도 없다. 닭은 제대로 미움받지조차 않는다. 종교적 · 문화적 금기가 아니라 그저 싫어서 어떤 고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힌두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흔히 먹으려 하지 않고, 많은 한국인은 아무 금기가 없는데도 양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닭도 먹을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닭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소 · 말 · 돼지처럼) 덩치 큰 동물도 (양 · 염소처럼) 억세고 고집 센 동물도 아닌, 작고 비교적 온순한 새라서 존재감이 비교적 낮은 것이 일부 까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된 까닭은 틀림없이 단백질원으로서의 다양한 쓰임새, 꽤 무난한 맛, 비교적 쉬운 조리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닭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요리된다. 튀기고(미국 남부의 프라이드치킨, 일본의 도리 가라아게, 한국의 양념치킨), 기름에 지지고(일일이 이름을 대기 어려울 만큼 많은 중국 · 태국 등의 요리), 스튜로 끓이고(프랑스의 코코뱅, 북아프리카의 치킨 타진), 굽고(유럽의 여러 로스트 치킨, 남아시아의 탄두리 치킨), 불에 굽고(말레이 · 태국의 사테, 아프리카-포르투갈의 피리피리 치킨), 훈연해 굽고(자메이카의 저크 치킨), 삶는다(찹쌀 · 인삼 뿌리와 함께 삶은 한국의 삼계탕, 유대인의 치킨 수프). 저자는 모든 요리를 닭으로 만드는 일본의 한 식당에서 닭 사시미까지 먹어 보았다. 이렇게 보편적인 고기이니, 좁은 공간에서 온갖 음식 취향과 금기를 맞춰야 하는 항공사가 닭을 고르는 것도 놀랍지 않다. 러시아 항공사 Aeroflot는 소련 시절 이 방침을 극단까지 밀고 간 것 같다.

어법

- **I know of no culture which venerates it, as Hindus do the cow** : know of = ~에 대해 (들어서) 알다. no culture = 그런 문화가 하나도 없다(부정어가 목적어에 붙었다). which = 주격 관계대명사. as Hindus do the cow = do는 venerate를 대신하는 대동사(힌두교도가 소를 숭배하듯).
- **Neither is there a culture that denigrates it, in the way Muslims and Jews do the pig** : 부정어 Neither가 문장 앞에 와서 be동사와 주어가 도치(Neither is there ~ = ~도 없다). in the way (that) ~ = ~하는 방식으로. do = denigrate를 대신하는 대동사.
- **There are people who would shun certain meats not out of religious or cultural taboos but out of distaste** : would = 습성 · 경향(~하곤 한다). not A but B = A가 아니라 B. out of = ~에서 비롯되어(동기).
- **Hindus can but often won't eat pork, while many Koreans simply won't eat lamb, despite having no food taboo about it** : can과 won't가 eat pork를 함께 받는다. won't = 고집 · 거절의 will not. while = 대조. despite + 동명사(having) — despite of는 오답. it = lamb.
- **This universal acceptability of chicken may be partly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profile of the creature itself** : may be because of + 명사구 = ~ 때문일 수도 있다(추측). itself = 강조의 재귀대명사(그 동물 자체).

- **But it must mainly have to do with its versatility as a source of protein, with its rather neutral taste and with the relative ease of cooking** : must = 강한 추측(~임에 틀림없다). have to do with = ~와 관련이 있다. with가 세 번 되풀이되며 까닭을 병렬.
- **I have even eaten chicken sashimi in a restaurant in Japan, every single one of whose dishes was made with chicken** : 수량어 + of + whose(선행사 a restaurant). 주어 every single one → 단수 동사 was. 현재완료(경험) have eaten.
- **Given its status as the universal meat, it is not a surprise that chicken is the choice of airlines, which have to cater for so many different food preferences and taboos in a confined space** : Given ~ = ~을 고려하면.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airlines → 복수 have). cater for = ~의 요구를 맞추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enerate	숭배하다	revere	despise
denigrate	깎아내리다, 폄하하다	belittle	praise
shun	피하다	avoid	embrace
taboo	금기	prohibition	—
distaste	싫어함, 혐오	dislike	liking
profile	존재감, 눈에 띄는 정도	prominence	—
docile	온순한	tame	unruly
hulking	덩치 큰	bulky	tiny
obstinate	고집 센	stubborn	compliant
versatility	다양한 쓰임새	adaptability	—
neutral	(맛이) 무난한, 특색이 강하지 않은	mild	strong
conceivable	생각할 수 있는	imaginable	inconceivable
cater for	~의 요구를 맞추다	provide for	—
confined	좁은, 한정된	cramped	spacious

내용 일치 닭을 숭배하는 문화도 깎아내리는 문화도 저자는 알지 못함 · 소(힌두교도가 숭배) · 돼지(무슬림 · 유대인이 깎아내림) · 취향으로 피하는 고기 = 힌두교도의 돼지고기(먹을 수는 있지만 흔히 안 먹음) · 많은 한국인의 양고기(금기 없음) · 고기를 먹을 사람은 닭도 먹는 것 같다 / 보편성의 까닭 = 작고 비교적 온순한 새라 존재감이 낮음(일부일 수도) · 주로 단백질원의 다양한 쓰임 · 무난한 맛 · 조리의 쉬움 · 요리법: 튀김(미국 남부 · 일본 도리 가라아게 · 한국 양념치킨) · 지짐(중국 · 태국 등) · 스튜(코코뱅 · 치킨 타진) · 구이(로스트 치킨 · 탄두리) · 불 구이(사테 · 피리피리) · 훈연 구이(저크 치킨) · 삶기(삼계탕 · 유대인 치킨 수프) · 일본의 닭 요리 전문점에서 닭 사시미 / 항공사 =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취향 · 금기 → 닭 · Aeroflot(러시아)는 소련 시절 극단까지 밀고 간 것 같다. **밑줄 의미** Poor chicken = 모두가 먹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대접하지 않는 닭에 대한 짐짓 동정 / Chicken is not even disliked properly = 미움받을 만큼의 존재감조차 없다 / the universal meat = 누구나 먹는 고기 / taken this policy to the extreme = 닭만 내놓는 방식을 끝까지 밀고 갔다 / 지칭: 94쪽 ¶1 it(takes it · venerates it · denigrates it) = chicken · it(no food taboo about it) = lamb / 94쪽 ¶2 the creature itself = 닭이라는 동물 · it(must mainly have to do) = 닭의 보편적 수용성 · it(is cooked) = chicken · whose(dishes) = 일본의 그 식당 / 94쪽 ¶3 which = airlines · this policy = 닭을 기내식으로 고르는 방침 · its Soviet days = Aeroflot의.

한 줄 요약 닭은 숭배도 경멸도 받지 않지만 다양한 쓰임과 무난한 맛 덕분에 누구나 먹는 보편적인 고기가 되었고, 그래서 항공사의 기내식으로 뽑힌다.

12-2 Aeroflot의 닭고기와 '특별 대우는 없다' 94쪽 ¶4 ~ 95쪽 ¶1

원문 위치 원서 94쪽 ¶4 ~ 9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4쪽 ¶4 첫 문장(95쪽 첫 줄까지)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in Cambridge in the late 1980s, an Indian friend of mine used to fly home with Aeroflot, via Moscow	인물 · 시기 · 경로 — 일치
◆	95쪽 첫 줄(94쪽 ¶4 둘째 문장)	Apparently the airline was awful in every conceivable way	전언(Apparently) — 단정 금지
★	95쪽 첫 줄(94쪽 ¶4 둘째 문장)	many Indians stoically endured it, as their tickets were by far the cheapest	까닭 — 일치 · by far + 최상급
★	95쪽 첫 줄(94쪽 ¶4 셋째 문장)	According to my friend, sickly white, goose-bumpy, tasteless chicken was the only inflight meal available	친구의 말 — 전언
▲	95쪽 첫 줄(94쪽 ¶4 넷째 문장)	my friend overheard a fellow Indian passenger ask a stewardess whether he could have something other than chicken	지각동사 + O + 원형 · 지칭 문항의 바탕(he)
◆	95쪽 첫 줄(94쪽 ¶4 마지막 문장)	'No, you cannot. Everybody's equal on Aeroflot. It's a socialist airline. There's no special treatment.'	밑줄 의미 1순위 · 장 전체의 출발점
★	95쪽 ¶1 첫 문장	an extreme version of the Soviet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be treated equally, because everyone is a human being who is equally valuable	동격 that · 원칙의 근거
★	95쪽 ¶1 둘째 문장	whether someone was a government minister, a medical doctor, a coal miner or a cleaner, each person would be given the same ration	whether A or B(양보) · 어휘(ration)
★	95쪽 ¶1 둘째 문장	bread, sugar, sausages, an annual pair of shoes and everything else through collective provisions	배급 품목 — 일치
◆	95쪽 ¶1 셋째 문장	No special treatment.	승무원의 말 되받기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8쪽 각주 i 첫~둘째 문장	That was the theory. The practice was rather different.	이론 ↔ 실제 — 일치 함정
▲	98쪽 각주 i 셋째 문장(99쪽으로 이어짐)	Not only were there substantial pay differentials … but the political elite did get special treatment	Not only 도치 · 강조의 did
★	99쪽 각주 i(이어짐)	better housing, access to special stores … and opportunities to travel to capitalist countries	엘리트의 특혜 — 일치

내용

1980년대 말 저자가 케임브리지의 대학원생이던 시절, 저자의 인도인 친구는 모스크바를 거쳐 Aeroflot로 고향에 다니곤 했다. 듣기로는 이 항공사가 편안함 · 시간 엄수 · 승무원의 태도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형편없었지만, 표가 단연 가장 쌌기 때문에 많은 인도인이 묵묵히 견뎠다. 친구의 말로는 기내식이라고는 핏기 없이 허옇고 닭살이 돋은 맛없는 닭고기뿐이었다. 한번은 친구가 Aeroflot 비행기에서, 같은 인도인 승객이 승무원에게 닭 말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가, 말하자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승무원은 이렇게 받아쳤다. '아뇨, 안 됩니다. Aeroflot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회주의 항공사니까요.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이 대답은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한 인간이므로 모두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소련 원칙의 극단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정부 장관이든 의사든 광부든 청소부든, 누구나 같은 양의 빵 · 설탕 · 소시지, 해마다 신발 한 켤레, 그 밖의 모든 것을 집단 공급으로 배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특별 대우는 없다. (98쪽 각주 i: 그것은 이론이었고 실제는 꽤 달랐다. 사람들 사이에 (자본주의 나라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 엘리트는 실제로 특별 대우를 받았다 — 더 좋은 집, 더 좋은 (흔히 수입) 상품을 파는 특별 상점, 그리고 이를테면 고국의 보통 사람은 구할 수 없는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자본주의 나라로 여행할 기회.)

어법

- **an Indian friend of mine used to fly home with Aeroflot, via Moscow** : a friend of mine = 이중 소유격(a my friend는 오답). used to V = 예전에 ~하곤 했다. home = 부사(to home은 오답). via = ~을 거쳐.
- **Apparently the airline was awful in every conceivable way …, but many Indians stoically endured it, as their tickets were by far the cheapest** : Apparently = 듣기로는(전언 —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다). as = 이유. by far + 최상급 = 단연 가장 ~.
- **my friend overheard a fellow Indian passenger ask a stewardess whether he could have something other than chicken** : overhear + O + 원형부정사(ask) = O가 ~하는 것을 우연히 듣다. ask + O + whether절(간접의문문). other than = ~ 말고.
- **because he was, well, a vegetarian** : well = 말을 고르는 삽입어(문장 성분이 아니다). he = 동료 인도인 승객.
- **the Soviet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be treated equally, because everyone is a human being who is equally valuable** : that = 동격 접속사(principle의 내용, 뒤가 완전한 절). should be treated = 조동사 + 수동.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human being).
- **So, whether someone was a government minister, a medical doctor, a coal miner or a cleaner, each person would be given the same ration of bread, sugar, sausages …** : whether A, B, C or D = ~이든 ~이든(양보 부사절). each + 단수 명사. would be given = give의 수동(사람이 주어) —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 **Not only were there substantial pay differentials between different people …, but the political elite did get special treatment** : 부정어구 Not only가 문장 앞 → were there 도치. did get = 강조의 do(실제로 받았다).

- **opportunities to travel to capitalist countries (where they could, among other things, buy luxury goods not available to ordinary people back home)**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apitalist countries). among other things = (다른 여러 일 가운데) 이를테면(삽입). not available ~ = goods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	postgraduate	—
punctuality	시간 엄수	timeliness	lateness
stoically	묵묵히, 꿋꿋이	patiently	—
endure	견디다	tolerate	—
sickly	(빛깔이) 핏기 없는	pale	healthy
overhear	우연히 듣다	—	—
vegetarian	채식주의자	—	meat-eater
quip (v.)	재치 있게 받아치다	joke	—
principle	원칙	tenet	—
ration	배급량	allowance	—
annual	해마다의	yearly	—
collective	집단의, 공동의	communal	individual
differential	(임금 등의) 격차	gap	—
elite	엘리트, 특권층	upper class	the masses

내용 일치 1980년대 말 저자 = 케임브리지 대학원생 · 인도인 친구가 모스크바를 거쳐 Aeroflot로 귀국하곤 함 · 항공사는 모든 면(편안함 · 시간 엄수 · 승무원 태도 등)에서 형편없었다고 한다 · 표가 단연 가장 싸서 많은 인도인이 묵묵히 견딤 · 친구에 따르면 기내식은 핏기 없고 닭살이 돋은 맛없는 닭뿐 · 동료 인도인 승객(채식주의자)이 닭 말고 다른 것을 청함 → 승무원: 안 된다 · 모두가 평등 · 사회주의 항공사 · 특별 대우는 없다 / 소련 원칙 =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한 인간이므로 똑같이 대우 · 장관 · 의사 · 광부 · 청소부 모두 같은 빵 · 설탕 · 소시지, 해마다 신발 한 켤레, 그 밖의 모든 것을 집단 공급으로 / 각주 i = 이론일 뿐 · 실제로는 상당한 임금 격차(자본주의 나라보다는 훨씬 작음) · 정치 엘리트의 특별 대우(더 좋은 집 · 특별 상점 · 자본주의 나라 여행). **밑줄 의미** Everybody's equal on Aeroflot = 채식주의자에게도 닭을 주는 것이 '평등'이라는 극단적 논리 / There's no special treatment = 다른 필요를 채워 주는 일을 특혜로 여김 / an extreme version of the Soviet principle = 승무원의 말은 소련식 평등 원칙을 극단으로 밀고 간 것 / That was the theory = 실제 소련에는 격차와 특혜가 있었다 / 지칭: 95쪽 첫 줄 it(endured it) = the airline · their tickets = 인도인 승객들의 · his(Aeroflot flights) = 저자의 친구 · he(could have · was a vegetarian) = 동료 인도인 승객 · It's(a socialist airline) = Aeroflot / 95쪽 ¶1 each person = 장관 · 의사 · 광부 · 청소부 누구든 / 99쪽 각주 i they(could buy) = 정치 엘리트 · back home = 소련.

> **한 줄 요약** 채식주의자 승객에게도 닭만 준 Aeroflot 승무원의 '특별 대우는 없다'는 말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는 소련식 평등 원칙의 극단적 형태였다.

12-3 같은 대우는 왜 불공정한가 – 빵과 화장실 95쪽 ¶2 ~ 96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95쪽 ¶2 ~ 96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5쪽 ¶2	There is a serious problem with this way of approaching equality and fairness	문제 제기 – 주제문
▲	95쪽 ¶3 첫 문장	It is true that, as human beings, we all have the same 'basic needs'	It is true that ~ → However(양보 → 반박)
★	95쪽 ¶3 둘째 문장	the socialist principle is an important indictment of the practices in feudal and capitalist societies, where some people starve to death while others wallow in luxury	인정할 점 · 어휘(indictment)
★	95쪽 ¶3 셋째 문장	once we depart from the basics, our needs begin to diverge pretty quickly	문장 삽입 1순위 · 어휘(diverge)
▲	95쪽 ¶4 첫 문장	Take the case of bread – a staple food item in many societies	명령문으로 예를 듦 · 순서 배열의 첫 고리
★	95쪽 ¶4 둘째 문장	may sound fair in times of grave food shortage (… 1928–35 or the UK … 1946–8)	숫자 – 일치
★	95쪽 ¶4 셋째 문장	leavened wheat bread, which some people simply cannot eat – perhaps because they have coeliac disease, perhaps because they are Jews observing Passover	까닭 두 가지 – 추측(perhaps)
★	95쪽 ¶4 넷째 문장	providing male and female toilets of the same size … may sound even-handed … but it is a very unfair thing, as women need more time and space	동명사 주어 · 어휘(even-handed)
◆	95쪽 ¶4 넷째 문장	hence the snaking queues outside female public toilets	hence + 명사구 · 그림 같은 증거
★	95쪽 ¶5 첫 문장	treating people with different needs in the same way … is fundamentally unfair	요지 · 동명사 주어 → is
◆	95쪽 ¶5 둘째~셋째 문장	treating people with different needs differently is not giving them special treatment.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of fairness	제목 1순위 · 승무원의 말 뒤집기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5쪽 ¶5 넷째 문장(96쪽 첫 줄까지)	we are not showing favouritism to vegetarians, coeliac sufferers or women, respectively	respectively — 짝 맞추기
◆	96쪽 첫 줄(95쪽 ¶5 다섯째 문장)	We are simply putting them on an equal footing as the others in their fulfilment of basic needs	밑줄 의미 · 지칭(them)

내용

이처럼 평등과 공정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같은 '기본 욕구'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깨끗한 물, 안전한 거처, 영양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원칙은,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다른 사람은 사치에 빠져 지내는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관행을 고발하는 중요한 비판이다. 그러나 기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필요는 꽤 빨리 갈라지기 시작하고,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많은 사회의 주식인 빵을 예로 들어 보자. 모두에게 하루에 같은 양의 빵을 주는 것은 (농업 집단화 뒤 식량이 부족했던 1928~35년의 소련이나 2차 세계대전 뒤 식량이 부족했던 1946~8년의 영국처럼) 심각한 식량 부족 때에는 공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빵이 발효시킨 밀빵이라면 공정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빵을 아예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셀리악병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이어서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공공건물에 같은 크기의 남녀 화장실을 두는 것은 인구의 대략 절반이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은 화장실에서 시간과 공간이 더 필요하므로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영화관 · 공연장 같은 곳의 여자 공중화장실 밖에 구불구불 길게 늘어선 줄이 그 결과다. 요컨대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 — 채식주의자에게 닭고기를, 셀리악병 환자에게 밀빵을 주고,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화장실 공간을 배정하는 것 — 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 Aeroflot 승무원의 생각과 달리,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다. 기내식에 채식 선택지를 두고, 글루텐 없는 빵을 내놓고,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 때 우리는 채식주의자 · 셀리악병 환자 · 여성을 각각 편애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본 욕구를 채우는 데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위치에 세우는 것이다.

어법

- **It is true that, as human beings, we all have the same 'basic needs' ... However, once we depart from the basics, ...** : It is true that ~. However ~ = 양보(인정) 뒤에 반박. as = 자격(~으로서). once = 접속사(일단 ~하면).
- **feudal and capitalist societies, where some people starve to death while others wallow in luxury**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societies,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some ~ others ~ = 어떤 이들은 ~ 다른 이들은 ~. starve to death = 굶어 죽다.
- **our needs begin to diverge pretty quickly, and treating everyone in the same way becomes problematic** : 동명사구 주어(treating ~) + 단수 동사 becomes. pretty = 부사(꽤). become + 형용사(보어).
- **Giving everyone the same amount of bread per day may sound fair in times of grave food shortage** : 동명사구 주어 + may sound + 형용사(fair; fairly는 오답). give + 간접목적어(everyone) + 직접목적어(the same amount).
- **it isn't fair if the bread is leavened wheat bread, which some people simply cannot eat – perhaps because ..., perhaps because ...** : which = ea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계속적 관계대명사. perhaps because ~를 되풀이해 까닭을 추측으로 나열한다(단정이 아니다).
- **providing male and female toilets of the same size in a public building may sound even-handed, given that roughly half the population is male and the other half female** : 동명사구 주어(providing ~). given that ~ = ~을 고려하면. the other half (is) female — 되풀이되는 is를 생략.

- **as women need more time and space in the toilet – hence the snaking queues outside female public toilets** : as = 이유. hence + 명사구 = 그래서 ~이 생긴다(동사 없이 결과를 덧붙인다).
- **In offering vegetarian options ..., providing gluten-free bread or making female toilets more numerous, we are not showing favouritism to vegetarians, coeliac sufferers or women, respectively** : In + 동명사 = ~할 때, ~함에 있어. make + O + 형용사(more numerous). respectively = 각각(앞의 세 조치와 세 집단을 순서대로 짝짓는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dictment	고발, 비판	condemnation	endorsement
feudal	봉건의	—	—
wallow in	~에 빠져 지내다	revel in	—
diverge	갈라지다	differ	converge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troublesome	unproblematic
staple (a.)	주된, 기본의	basic	—
grave	심각한	serious	trivial
leavened	(빵이) 발효된, 부풀린	raised	unleavened
even-handed	공평한	impartial	biased
snaking	구불구불 늘어선	winding	straight
allocate	배정하다	assign	—
favouritism	편애, 특혜	partiality	impartiality
footing	입장, 위치	standing	—
fulfilment	충족	satisfaction	—

내용 일치 이런 평등 · 공정 접근법에는 심각한 문제 · 인간으로서 같은 기본 욕구(깨끗한 물 · 안전한 거처 · 영양 있는 음식) · 그 점에서 사회주의 원칙은 봉건 · 자본주의 사회(굶어 죽는 사람과 사치에 빠진 사람)에 대한 중요한 고발 · 기본을 넘어서면 필요가 꽤 빨리 갈라짐 / 빵 = 많은 사회의 주식 · 심각한 식량 부족 때 같은 양은 공정해 보일 수 있음(소련 농업 집단화 뒤 1928~35 · 영국 2차 대전 뒤 1946~8) · 발효 밀빵이면 불공정(셀리악병 ·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 — perhaps) / 같은 크기의 남녀 화장실 = 공평해 보이지만 여성은 시간 · 공간이 더 필요 → 영화관 · 공연장 등 여자 화장실 밖의 긴 줄 / 다른 필요를 같게 대하면 근본적으로 불공정 · 다르게 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 채식 기내식 · 글루텐 없는 빵 · 더 많은 여자 화장실 = 편애가 아니라 기본 욕구 충족에서 대등한 위치에 세우는 것. **밑줄 의미** There is a serious problem with this way =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평등관의 한계 / our needs begin to diverge = 기본 욕구를 넘어서면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다 / hence the snaking queues = 같은 크기의 화장실이 불공정하다는 증거 / not giving them special treatment = 다른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 putting them on an equal footing = 기본 욕구를 채우는 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세운다 / 지칭: 95쪽 ¶2 this way of approaching = 소련식 '똑같이 대하기' / 95쪽 ¶3 where = 봉건 · 자본주의 사회 / 95쪽 ¶4 they(have coeliac disease) = 발효 밀빵을 못 먹는 사람들 · it(is a very unfair thing) = 같은 크기의 화장실을 두는 일 / 95쪽 ¶5 them(giving them) = 필요가 다른 사람들 · It(is one of) = 다르게 대하는 것 / 96쪽 첫 줄 them = 채식주의자 · 셀리악병 환자 · 여성 · the others = 나머지 사람들.

> **한 줄 요약** 기본 욕구를 넘어서면 필요가 갈라지므로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면 불공정하며,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의 조건이다.

12-4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공정 – 기여에 따른 보상 96쪽 ¶1-¶3

원문 위치 원서 96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6쪽 ¶1 앞 *	(구분 표시 *)	장면 전환 – 사회주의자에서 반대편의 자유시장 경제학자로
◆	96쪽 ¶1	free-market economists, have an equally blinkered view of equality and fairness, albeit in a totally different way	밑줄 의미 1순위 · albeit
★	96쪽 ¶2 첫 문장	the socialist system didn't work because it tried to ensure low inequality by paying everyone similarly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주장(argue) – 저자의 주장과 구분
◆	96쪽 ¶2 첫 문장 괄호	(it was never the 'same', except in extreme cases like Maoist China or Cambodia under Khmer Rouge)	저자의 단서 – 일치 함정
★	96쪽 ¶2 둘째 문장	There are inventors, investment bankers, brain surgeons and entertainers, the free-marketeers point out, who make huge contributions	삽입절 · 떨어진 관계절(who의 선행사)
★	96쪽 ¶2 셋째 문장	most people are competent at what they do while there are some who are suited only for the most basic jobs	대조 while
▲	96쪽 ¶2 넷째 문장	trying to achieve low inequality by paying people within a narrow range spells disaster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spell(초래하다)
★	96쪽 ¶2 다섯째 문장	not only unfair for the more capable people … but it is also socially counter-productive because it makes the more capable people less motivated	not only A but also B · make + O + 형용사
◆	96쪽 ¶2 여섯째 문장	This can only bring equality in poverty, free-market economists opine	밑줄 의미 · 그들의 의견(opin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6쪽 ¶3 첫 문장	we should let individuals compete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and accept the outcome of the competition, even if ...	let + O + 원형 · 빈칸의 바탕
★	96쪽 ¶3 둘째 문장	the most productive because individuals will have the highest incentive ..., the fairest because they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	빈칸 1순위 · 두 까닭의 병렬

내용

흥미롭게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사회주의자의 반대편 끝에 있는 사람들, 곧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평등과 공정에 대해 똑같이 좁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까닭이, 사람마다 경제에 하는 기여가 엄청나게 다른데도 모두에게 비슷하게 보수를 주어 불평등을 낮게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저자는 괄호 안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이나 크메르 루주 치하의 캄보디아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빼면 보수가 '똑같았던' 적은 없었다고 덧붙인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외과의 · 연예인처럼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머지 가운데 대부분은 제 일을 잘해 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에만 맞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좁은 범위 안에서 보수를 주어 불평등을 낮추려 하면 재앙을 부른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여에 걸맞은 것보다 (때로는 훨씬) 적게 보상받는 더 유능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혁신하려는 의욕을 꺾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견해로는 이는 빈곤 속의 평등만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은, 어떤 견해로 보면 지나치게 불평등해 보이는 소득 분배가 나오더라도 개인들이 능력껏 경쟁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공정한 체제라고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산출을 최대한 늘릴 가장 큰 유인을 갖게 되므로 가장 생산적이고, 경제에 대한 기여에 따라 보상받으므로 가장 공정하다는 것이다.

어법

- those at the other end of the political spectrum from the socialists, namely, free-market economists, have an equally blinkered view ..., albeit in a totally different way : those = 사람들(at ~ 전치사구가 꾸밈). namely = 곧(동격을 밝힘). 주어 those → 복수 동사 have. albeit = 비록 ~이지만(뒤에 절이 아니라 구가 온다).
- the socialist system didn't work because it tried to ensure low inequality by paying everyone similarly ..., despite the fact that different people make vastly different contributions : by + 동명사 = 수단. despite the fact that ~ = ~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despite 바로 뒤에는 절이 올 수 없어 the fact that을 쓴다).
- There are inventors, investment bankers, brain surgeons and entertainers, the free-marketeers point out, who make huge contributions to the economy : the free-marketeers point out = 삽입절. who의 선행사 = inventors ... entertainers(삽입절을 건너뛰어 이어진다).
- trying to achieve low inequality by paying people within a narrow range spells disaster : 동명사구 주어(trying ~) → 단수 동사 spells. spell disaster = 재앙을 부르다.
- This is not only unfair for the more capable people who are rewarded less (sometimes far less) than their contributions merit but it is also socially counter-productive : not only A but (it is) also B. far = 비교급 강조(훨씬). merit = 동사(~을 받을 만하다) — than 뒤 비교절의 동사로, 받을 만한 보상(목적어)은 생략되었다.
- because it makes the more capable people less motivated to work hard, invest and innovate : make + O + 형용사(motivated). to work, (to) invest, (to) innovate 병렬. it = 좁은 범위의 보수로 불평등을 낮추려는 것.

- **we should let individuals compete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and accept the outcome of the competition, even if it produces a distribution of income that may seem excessively unequal** : let + O + 원형부정사(compete; to compete는 오답). accept는 should에 이어진다(let과 병렬). even if = 양보. to the best of one's abilities = 능력껏.
- **the most productive because individuals will have the highest incentive to maximize their outputs, the fairest because they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 : 콜론 뒤에서 (it is) the most productive because ~ / (it is) the fairest because ~ 두 구가 병렬. according to = ~에 따라.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pectrum	스펙트럼, 범위	range	—
blinkered	시야가 좁은, 편협한	narrow-minded	broad-minded
albeit	비록 ~이지만	although	—
vastly	엄청나게	hugely	slightly
competent	유능한, 제 몫을 하는	capable	incompetent
spell (v.)	(나쁜 결과를) 부르다	mean	—
merit (v.)	~을 받을 만하다	deserve	—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는	self-defeating	productive
motivated	의욕이 있는	driven	unmotivated
innovate	혁신하다	—	—
opine	의견을 말하다	state	—
assert	주장하다	claim	deny
excessively	지나치게	overly	moderately
incentive	유인, 동기	motivation	disincentive

내용 일치 자유시장 경제학자 =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사회주의자의 반대편 · 저자: 그들도 똑같이 시야가 좁다(방식은 완전히 다름) / 그들의 주장: 사회주의는 모두에게 비슷하게 보수를 줘 불평등을 낮추려 해서 실패 · 저자의 괄호: '똑같지'는 않았음(마오의 중국 · 크메르 루주의 캄보디아 같은 극단적 경우는 예외) ·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 외과의 · 연예인 = 큰 기여 · 대부분은 제 일에 유능 · 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만 맞음 · 좁은 범위의 보수 = 재앙 · 유능한 사람에게 불공정 + 의욕을 꺾어 역효과 · 빈곤 속의 평등뿐 / 그러므로 능력껏 경쟁하게 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 가장 생산적(산출을 최대화할 유인) · 가장 공정(기여에 따라 보상) — 모두 그들의 주장(argue · opine · assert · they say). **밑줄 의미** an equally blinkered view = 자유시장 경제학자도 사회주의자처럼 평등 · 공정을 한쪽으로만 본다(어떻게 좁은지는 뒤 단락에서) / spells disaster = 보수 격차를 좁히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그들의 주장 / equality in poverty =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평등 / 지칭: 96쪽 ¶2 it(tried) = the socialist system · it(was never the 'same') = 사회주의 체제의 보수 · who(make huge contributions) = 발명가 · 투자 은행가 · 뇌 외과의 · 연예인 · they(argue) = free-market economists · This(is not only unfair) = 좁은 범위의 보수로 불평등을 낮추려는 것 / 96쪽 ¶3 it(produces) = 경쟁의 결과 · they(say) = 자유시장 경제학자 · they(will be rewarded) = individuals.

> **한 줄 요약**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비슷한 보수가 유능한 사람에게 불공정하고 의욕을 꺾는다며, 능력껏 경쟁해 기여에 따라 보상받는 체제가 가장 생산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12-5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제 조건과 차별 96쪽 ¶4 ~ 97쪽 ¶2

원문 위치 원서 96쪽 ¶4 ~ 97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6쪽 ¶4 첫~둘째 문장	The validity of the principle … has an important pre-condition. It is that everyone has the chance to try for the best possible jobs – namely, there should be equality of opportunity	통합 사고 빈칸 · 보어 that절
★	96쪽 ¶5 첫~둘째 문장	This is not a trivial condition. … formal restrictions on people's choice of education and occupation because of caste, gender, race and religion (see 'Acorn')	1장과 잇는 고리
★	96쪽 ¶5 셋째 문장	did not accept non-Anglicans (e.g., Catholics, Jews, Quakers) until 1871 and didn't award degrees to women until 1920 and 1948 respectively	숫자 · respectively — 일치 1순위
★	99쪽 각주 ii	Oxford, Cambridge and Durham only after 1871 … 1920 in Oxford and 1948 in Cambridge	더럼 추가 · 짝 확인
▲	96쪽 ¶5 넷째 문장	were forced to study at severely under-funded and crowded non-white universities,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get decent jobs	결과의 분사구문 + 가목적어 it
★	96쪽 ¶6 첫 문장(97쪽 첫 줄까지)	most of these formal discriminations have been abolished, but no country has achieved true equality of opportunity	어법 문항의 바탕
★	97쪽 첫 줄(96쪽 ¶6 둘째 문장)	the sexist view that women are less likely to put career above family, if not the mistaken and downright offensive view that they are inherently inferior	동격 that · if not
★	97쪽 첫 줄(96쪽 ¶6 셋째 문장)	Racial discrimination … is still rampant in all multi-racial societies, which give greater opportunities to less able people from ethnic-majority backgrounds	주어 – 동사 수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7쪽 ¶1 첫 문장	The discrimination may even be partly self-imposed	추측 — 단정 금지
★	97쪽 ¶1 둘째 문장	'masculine' – science, engineering, economics – … 'voluntarily' choose not to study these subjects	따옴표 = 진짜 자발이 아님
★	99쪽 각주 iii	50% … in Cyprus … 36% and 38% in Denmark and Russia. In Korea and Japan, it is just 5–10%	숫자 — 일치
★	97쪽 ¶1 셋째 문장	in the early 1980s, there were only six female students in the cohort of 360 or so, … eleven female students among a cohort of over 1,200	숫자 1순위 — 6 · 360 · 11 · 1,200
★	99쪽 각주 iv	over 30%, approaching 40% … rising to around 15%	오늘날의 숫자
★	97쪽 ¶1 넷째 문장	There was no formal rule … because they had been socialized to think those suited them better	불일치 1순위 · 과거완료 수동
◆	99쪽 각주 v	not to say that these choices are entirely … due to … 'internalizing' sexist social norms … parents … relatives and friends	저자의 단서
★	97쪽 ¶2	the outcome of the competition cannot be seen as being the most productive or the fairest one. Equality of opportunity is vital	결론 — 주장

내용

기여에 따라 보수를 준다는 원칙이 타당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곧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조건이 아니다. 과거 많은 사회는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 때문에 사람들의 교육 · 직업 선택을 공식적으로 제한했다(「Acorn」 참조).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은 1871년까지 (가톨릭교도 · 유대인 · 퀘이커교도 같은) 비국교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에게는 각각 1920년과 1948년이 되어서야 학위를 주었다(99쪽 각주 ii: 비국교도는 1871년 이후에야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더럼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여성은 19세기 말부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학위는 옥스퍼드에서 1920년, 케임브리지에서 1948년에야 받았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아래에서 흑인과 '유색인'(혼혈을 가리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용어)은 재정이 몹시 부족하고 붐비는 비백인 대학에서 공부해야 했고,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오늘날 이런 공식적 차별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룬 나라는 없다. 직장에서 여성은, 타고나기를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그릇되고 몹시 모욕적인 시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은 가정보다 경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낮다는 성차별적 시각 때문에 남성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교육 · 노동 시장 · 일터의 인종 차별은 모든 다인종 사회에서 여전히 만연해, 소수 인종 출신의 더 유능한 사람보다 다수 인종 출신의 덜 유능한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준다. 차별은 심지어 부분적으로 스스로 부과한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사회에서 과학 · 공학 · 경제학 같은 과목은 '남성적'이라고 널리 여겨지고, 똑똑한 젊은 여성 다수는 적성으로 보면 아주 잘 맞을 때에도 이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다(99쪽 각주 iii: 나라마다 차이가 커서, 공학 졸업생 가운데 여성이 키프로스는 50%, 덴마크와 러시아는 36%와 38%지만 한국과 일본은 5~10%에 그친다 — UNESCO 자료).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저자가 다닌 경제학과 학부 과정에는 360명 남짓한 동기 가운데 여학생이 6명뿐이었고, 공학부에는 1,200명이 넘는 동기 가운데 여학생이 11명뿐이었다(99쪽 각주 iv: 요즘 저자의 모교 경제학과 여학생 비율은 30%를 넘어 40%에 가깝고, 공학부도 15% 안팎으로 올랐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40년 전보다 훨씬 낫다). 여학생은 공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할 수 없다는 공식 규정은 없었지만, 똑똑한 여학생 다수는 영문학이나 심리학 같은 '여성적' 과목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골랐다(99쪽 각주 v: 스스로 검열했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런 선택이 전적으로 또는 꼭 주로 여학생 개인이 성차별적 사회 규범을 '내면화'한 탓이라는 뜻은 아니다. 부모의 뜻에 꺾인 이도, 친척 · 친구의 못마땅한 눈길을 두려워한 이도 있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별 · 종교 · 인종처럼 그 일을 해낼 능력과 아무 관계 없는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공식적 · 비공식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에 들어서는 것조차 막힌다면, 그 경쟁의 결과는 가장 생산적이거나 가장 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이다.

어법

- **It is that everyone has the chance to try for the best possible jobs – namely, there should be equality of opportunity** : It = 앞 문장의 an important pre-condition. that절 = 보어(완전한 절). the best possible = 가능한 한 가장 좋은. namely = 곧.
- **did not accept non-Anglicans ... until 1871 and didn't award degrees to women until 1920 and 1948 respectively** : not A until B = B가 되어서야 A했다. respectively = 앞의 Oxford · Cambridge와 1920 · 1948을 순서대로 짝짓는다.
- **Blacks and 'coloureds' ... were forced to study at ...,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get decent jobs** : be forced to V = 강요받다(수동). making it(가목적어) + 형용사 + for + 의미상 주어 + to V(진목적어) = 결과의 분사구문.
- **Women in workplaces are not given the same opportunity as men based on the sexist view that women are less likely to put career above family, if not the ... view that they are inherently inferior to men** : the same A as B. based on = ~에 근거해. that = 동격(두 번 모두). if not ~ = ~까지는 아니더라도(어쩌면 ~이기까지 한). be inferior to(than은 오답).
- **Racial discrimination in education, the job market and the workplace is still rampant in all multi-racial societies, which give greater opportunities to less able people ... over more capable ones** : 주어 discrimination(단수) → is. which의 선행사 = all multi-racial societies(복수 → give). ones = people. give A to B over C = C보다 B에게 A를 주다.
- **a lot of bright young women 'voluntarily' choose not to study these subjects even when their aptitudes may make them entirely suitable** : choose not to V = 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make + O + 형용사(suitable). even when = ~할 때조차.
- **many bright female students chose to study 'feminine' subjects ..., because they had been socialized to think those suited them better** : had been socialized = 과거완료 수동(고르기 전부터 길들여져 있었다). think (that) ~ = that 생략. those = 'feminine' subjects.
- **if some people are prevented, formally and informally, from even entering the competition ... due to characteristic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capabilities** : prevent + O + from -ing의 수동 = be prevented from -ing. have nothing to do with = ~와 아무 관계가 없다. cannot be seen as being ~ = ~으로 볼 수 없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alidity	타당성	soundness	invalidity
pre-condition	전제 조건	prerequisit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rivial	사소한	minor	significant
caste	카스트(세습 신분)	—	—
under-funded	재정이 부족한	underfinanced	well-funded
abolish	폐지하다	do away with	establish
sexist	성차별적인	—	—
downright	노골적으로, 완전히	utterly	—
inherently	본래, 타고나기를	intrinsically	—
inferior	열등한	lesser	superior
rampant	만연한	widespread	rare
aptitude	적성	talent	—
cohort	(같은 해의) 동기 집단	class	—
socialize	(사회 규범에) 길들이다	condition	—

내용 일치 기여에 따른 보수 원칙의 전제 = 모두가 가장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 = 기회의 평등 · 사소한 조건이 아님 · 과거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에 따른 교육 · 직업 선택의 공식 제한(「Acorn」) ·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 = 1871년까지 비국교도(가톨릭 · 유대인 · 퀘이커) 불허 · 여성 학위 옥스퍼드 1920 · 케임브리지 1948(각주 ii: 더럼도 1871년 뒤에야 · 여성은 19세기 말부터 공부는 허용) · 아파르트헤이트 = 흑인 · '유색인'은 재정 부족 · 과밀한 비백인 대학 → 괜찮은 일자리 거의 불가능 / 오늘날 공식 차별은 대부분 폐지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룬 나라는 없음 · 직장 여성(성차별적 시각) · 인종 차별은 모든 다인종 사회에 만연 / 차별은 부분적으로 스스로 부과된 것일 수도 · '남성적' 과목(과학 · 공학 · 경제학) · 1980년대 초 저자의 경제학과 = 360명 남짓 중 여학생 6명 · 공학부 = 1,200명 넘게 중 11명 · 공식 규정은 없었음 · '여성적' 과목(영문학 · 심리학)을 고름 · 각주 iii: 키프로스 50% · 덴마크 36% · 러시아 38% · 한국 · 일본 5~10% · 각주 iv: 지금 모교 경제학과 30% 넘어 40%에 가까움 · 공학부 15% 안팎 / 능력과 무관한 특성으로 경쟁에서 막히면 결과는 가장 생산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음 · 기회의 평등은 결정적. **밑줄 의미** This is not a trivial condition = 기회의 평등은 당연히 갖춰지는 조건이 아니다(과거엔 공식적으로 막혔다) / 'voluntarily' = 겉으로는 자발적 선택이지만 사회의 시선에 길들여진 결과 / self-imposed = 공식 규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가로막는 차별(may even be partly — 추측) / Equality of opportunity is vital =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원칙도 기회의 평등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 지칭: 96쪽 ¶4 It(is that) = an important pre-condition / 96쪽 ¶5 This = 기회의 평등이라는 조건 · them(for them to get) = 흑인과 '유색인' / 97쪽 첫 줄 they(are inherently inferior) = women · which = all multi-racial societies · ones = people / 97쪽 ¶1 them(make them entirely suitable) = bright young women · those(suited them) = '여성적' 과목 / 97쪽 ¶2 those jobs = 가장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

> **한 줄 요약**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려면 기회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공식 차별은 사라졌어도 성 · 인종 차별과 스스로 부과한 차별 때문에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아직 없다.

12-6 외다리 주자의 경주 – 필요 · 능력 · 결과의 평등 97쪽 ¶3 ~ 98쪽 ¶4

원문 위치 원서 97쪽 ¶3 ~ 98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7쪽 ¶3 첫 문장	let us suppose that, in some future society (hopefully not too far into the future), we somehow achieve true equal opportunity	가정 · 저자의 바람(hopefully)
★	97쪽 ¶3 둘째 문장 괄호	rules are often rigged – just think about 'legacy' students in American universities	예 – 일치
★	97쪽 ¶3 셋째 문장 ~ ¶4	Can we then say that we should accept whatever inequality exists …? Unfortunately, even then, we cannot.	질문 → 답 · 생략
★	97쪽 ¶5 첫 문장	everyone having equal opportunity to compete under the same rules does not mean that the competition is truly fair	의미상 주어 + 동명사 주어
◆	97쪽 ¶5 둘째 문장	We don't call a race fair simply because everyone starts from the same starting line if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밑줄 의미 1순위 · call + O + 형용사
◆	99쪽 각주 vi	Paralympics … gender division, age groups and weight classes … the weight band is 3–4 pounds, or 1.5–2 kilograms	숫자 · 체급 – 일치
★	97쪽 ¶5 셋째 문장	some may have had their brain developments stunted due to childhood malnutrition while others may have had sub-standard education	have + O + p.p. · 추측 may have p.p.
★	98쪽 첫 줄(97쪽 ¶5 넷째 문장)	equality of opportunity is meaningless unless every member of society has the minimum necessary capabilities	요지 · unless
★	98쪽 ¶1 첫~둘째 문장	ensure that all children develop minimum capabilities before they join the race … nutrition, healthcare, education and playtime	요지 1순위 · whos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8쪽 ¶1 셋째 문장	the differences in circumstances among those who are raising children … should not be too large	require that + S + (should) V
◆	98쪽 ¶1 넷째 문장	collective creches, like in Aldous Huxley's Brave New World or in North Korea today (although even there, I am told, …)	전언(I am told) — 단정 금지
★	98쪽 ¶1 다섯째 문장	equality of opportunity is not enough; we need a relatively high degree of equality of outcome	주장 1순위
★	98쪽 ¶2 첫~넷째 문장	regulations of markets … Switzerland and South Korea … small farms … small shops … financial regulations … labour market regulations	요약문 (A) · 예시
★	98쪽 ¶2 다섯째 문장	more effectively achieved by redistribution through the welfare state … (see 'Rye')	요약문 (B)
★	98쪽 ¶3	only thought of outcomes and opportunities, while neglecting needs and capabilities. The left … The right …	주장 · 좌우 대비
◆	98쪽 ¶4	We don't want to fly with an airline which thinks giving chicken to vegetarians is fair. However, neither do we want …	첫머리 되받기 · neither 도치

내용

이제 (바라건대 너무 먼 미래는 아닌) 어느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모두에게 진정으로 평등한 경쟁 기회를 마련했다고 해 보자. 또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경기한다고 가정해 보자(실제로는 규칙이 흔히 조작된다 — 부모나 조부모가 다닌 대학에 지원할 때 입학에서 유리한 미국 대학의 'legacy' 학생을 떠올려 보라). 그렇다면 모두가 같은 경기에서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경쟁 기회를 가졌으니 그 사회에 있는 어떤 불평등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때조차 그럴 수 없다.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할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그 경쟁이 진정으로 공정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주자는 다리가 하나뿐이거나 한쪽 눈이 멀었다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주를 공정하다고 하지는 않는다(99쪽 각주 vi: 실제 스포츠에서 우리는 참가자의 능력 차이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 패럴림픽을 두고 성별 · 연령 · 체급을 나눈다. 복싱 · 레슬링 · 태권도 · 역도처럼 체급이 있는 종목에서는 공정한 경기에 대한 관점이 매우 엄격해, 가벼운 체급의 복싱에서는 체중 범위가 3~4파운드(1.5~2kg)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이론상 모두가 원하는 어떤 일자리에든 도전할 기회가 같다고 해서, 일부 참가자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능력이 없다면 그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영양실조로 뇌 발달이 저해되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은 교육 재정이 평균에 못 미치는 궁핍한 지역에서 자라 수준 이하의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회를 활용할 최소한의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기회의 평등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삶의 경주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만들려면 모든 아이가 경주에 들어서기 전에 최소한의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아이가 영양 · 의료 · 교육, 그리고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놀이 시간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는 다시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 — 부모 · 친척 · 보호자 — 사이의 처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올더스 헉슬리의『Brave New World』나 오늘날의 북한처럼 모든 아이를 집단 탁아소에서 기를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저자가 듣기로는 그곳에도 정치 엘리트를 위한 더 좋은 탁아소가 있다). 요컨대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결과의 평등은 시장 규제로 높일 수 있다. 어떤 규제는 경제적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한국은 (농산물 수입을 제한해) 소농을, (대형 유통업체를 제한해) 소상점을 보호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낮춘다. 금융 규제(고수익 · 고위험 투기 활동의 제한)나 노동 시장 규제(적절한 최저 임금의 시행, 병가 수당 인상)로도 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매우 평등한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가 보여 주듯, 결과의 평등은 직접 소득 이전이든 교육 · 의료 · 수도 같은 양질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이든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Rye」 참조). 불평등 논쟁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람들이 결과와 기회만 생각하고 필요와 능력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좌파는 개인마다 필요와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채 모두의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겨 왔다. 우파는 기회의 평등이면 충분하다고 믿어 왔는데,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에는 개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능력의 평등이 필요하며, 이는 소득 재분배 · 양질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 시장 규제로 이룬 부모 세대 사이의 상당한 결과의 평등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채식주의자에게 닭고기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항공사를 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취향과 필요에 맞춘 여러 기내식(어쩌면 닭 요리도 한 가지가 넘는?)을 내놓되 우리 가운데 극소수만 감당할 수 있는 표값을 대가로 하는 항공사를 타고 싶지도 않다.

어법

- **Now, let us suppose that ... we somehow achieve true equal opportunity for everyone to compete. Also, let us also assume that everyone is playing by the same rules** : let us + 원형 = ~해 보자(제안). suppose · assume that ~ = 가정. for everyone to compete = opportunity를 꾸미는 to부정사(for + 의미상 주어). Also와 also가 겹친 것은 원서 표기.
- **Can we then say that we should accept whatever inequality exists in such a society ...? Unfortunately, even then, we cannot.** : whatever + 명사 = 어떤 ~이든(복합관계형용사, whatever inequality가 exists의 주어). we cannot (say that ...) = 되풀이를 피한 생략.
- **everyone having equal opportunity to compete under the same rules does not mean that the competition is truly fair** : everyone = 동명사 having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구 주어 → 단수 does not mean.
- **We don't call a race fair simply because everyone starts from the same starting line if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 call + O + 형용사(fair). not ~ simply because ... = 단지 …라는 이유로 ~하지는 않는다. if = 조건(~라면).
- **some may have had their brain developments stunted due to childhood malnutrition while others may have had sub-standard education** : may have p.p. = 과거 일에 대한 추측. have + O + p.p.(stunted) = O가 ~당하다(피해). due to + 명사. some ~ others ~ 대조.
- **This requires that all of them get adequate provision of nutrition, healthcare, education and playtime (whose importance in child development is increasingly recognized)** : require that + S + (should) 원형 — 바로 다음 문장은 should not be too large로 should를 그대로 썼다. whose의 선행사 = playtime. is increasingly recognized = 현재 수동.
- **greater equality of outcome is more effectively achieved by redistribution through the welfare state – whether it is through direct income transfers or through guaranteeing equal access to quality 'basic services'** : be achieved by ~ = 수동. whether it is A or B = A든 B든. through + 동명사(guaranteeing).
- **However, neither do we want to fly an airline which offers a range of meal alternatives ... but only at the cost of a ticket that few of us can afford** : neither + 조동사 + 주어 = ~도 아니다(도치). at the cost of ~ = ~을 대가로. few of us = 우리 가운데 거의 없는(부정의 뜻).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ig (v.)	조작하다	manipulate	—
contestant	참가자	competitor	—
stunt (v.)	(성장을) 저해하다	hinder	foster
malnutrition	영양실조	undernourishment	—
sub-standard	수준 이하의	inferior	first-rate
deprived	궁핍한, 혜택받지 못한	disadvantaged	privileged
adequate	충분한	sufficient	inadequate
provision	공급, 제공	supply	—
guardian	보호자	custodian	—
creche	탁아소	nursery	—
speculative	투기적인	risky	—
enforcement	시행	implementation	—
redistribution	재분배	—	—
neglect	소홀히 하다	overlook	attend to

내용 일치 가정: 진정한 기회의 평등 · 같은 규칙(실제로는 규칙이 흔히 조작됨 — 미국 대학의 'legacy' 학생: 부모 · 조부모가 다닌 대학 입학에서 유리) → 그래도 어떤 불평등이든 받아들일 수는 없다 / 외다리 · 한쪽 눈이 먼 주자 → 같은 출발선이어도 공정하지 않음 · 현실: 어린 시절 영양실조로 뇌 발달 저해 · 교육 재정이 평균 이하인 궁핍한 지역의 수준 이하 교육(may have — 추측) · 최소한의 능력 없으면 기회의 평등은 무의미 · 각주 vi: 패럴림픽 · 성별 · 연령 · 체급(복싱 · 레슬링 · 태권도 · 역도) · 가벼운 체급 복싱 3~4파운드(1.5~2kg) / 모든 아이가 경주 전에 최소한의 능력 → 영양 · 의료 · 교육 · 놀이 시간 → 기르는 사람들(부모 · 친척 · 보호자)의 처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집단 탁아소 — 『Brave New World』 · 오늘날 북한 — 가 아니라면 · 그곳에도 엘리트용 더 좋은 탁아소가 있다고 들었다) ·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 상당히 높은 결과의 평등 / 시장 규제(스위스 · 한국의 소농 · 소상점 보호 · 금융 · 노동 시장 규제) · 그러나 복지국가의 재분배(직접 소득 이전 · 양질의 기본 서비스 — 교육 · 의료 · 수도)가 더 효과적(「Rye」) / 좌파 = 결과만 · 우파 = 기회만 → 필요와 능력을 놓침 / 채식주의자에게 닭을 주는 항공사도, 극소수만 감당할 표값의 항공사도 싫다. **밑줄 의미**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 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없는 참가자 / the race of life = 삶의 경쟁 / equality of opportunity is meaningless = 능력이 없으면 기회를 쓸 수 없다 / even perhaps more than one type of chicken dish? =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저자의 농담 / only at the cost of a ticket that few of us can afford = 다양한 필요를 채워 주더라도 그 값이 극소수만 감당할 정도라면 원하지 않는다 / 지칭: 97쪽 ¶3 who(get advantage) = 'legacy' students / 97쪽 ¶5 some ↔ others = 경쟁 참가자 일부 / 98쪽 ¶1 they(join the race) = all children · whose = playtime의 · there = 집단 탁아소(『Brave New World』 · 북한) / 98쪽 ¶3 their parents' generation = 개인들의 부모 세대 / 98쪽 ¶4 which(thinks · offers) = airline.

> **한 줄 요약** 같은 기회와 같은 규칙만으로는 공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도록 상당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며, 불평등 논쟁은 필요와 능력을 함께 보아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2 CHICKEN]

범위	Chicken (원서 PDF 94~99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inequality debate has long gone astray, because people have looked only at outcomes and opportunities and ignored needs and capabilities. Those on the left assume that fairness means identical outcomes for all, forgetting that individuals differ in what they need and what they can do. Those on the right hold that equal opportunity is enough, not seeing that truly fair competition demands some equality of capabilities. That requires a fair degree of equal outcomes among the parents' generation, brought about by redistributing income, opening up good basic services and regulating markets.

① Only equal outcomes are fair.
② Equal opportunity alone ensures fair competition.
③ Fairness must take account of needs and capabilities.
④ Markets should not be regulated.
⑤ The inequality debate should focus on outcome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short, it is deeply unfair to treat people whose needs differ as though they were all alike – serving chicken to vegetarians, handing wheaten bread to coeliacs or giving women no more toilet space than men. The Aeroflot stewardess believed otherwise, but responding differently to different needs is not a form of special treatment; it is among the most essential conditions of fairness. Offering vegetarian meals, gluten-free bread or more women's toilets does not mean favouring vegetarians, coeliacs or women. We are simply making sure that, in meeting their basic needs, they stand on the same footing as everyone else.

① Special Treatment: The Enemy of Fairness
② Different Needs, Different Treatment: The Heart of Fairness
③ Why Airlines Should Serve Only Chicken
④ Favouritism Toward Minorities Must End
⑤ Basic Needs Are the Same for Everyon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f the race of life is to be truly fair, every child must develop minimum capabilities before joining it. All children therefore need enough food, healthcare, schooling and playtime, the last increasingly seen as vital for development. This, in turn, means that the circumstances of those who bring up children, such as parents, guardians and other relatives, must not differ too widely, unless we intend to bring up all children in collective creches, as in North Korea today. In short, equal opportunity is not enough; we also need a fairly high degree of equal outcomes.

① Children should grow up in collective creches.
② A fair race of life requires fairly equal outcomes too.
③ Playtime matters more than education.
④ Equal opportunity is all a fair society needs.
⑤ North Korea treats all children equally.

4. 밑줄 친 an equally blinkered view of equality and fairnes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uriously, free-market economists, at the far political extreme from the socialists, hold an equally blinkered view of equality and fairness, though in an entirely different way. In their eyes, socialism failed because it paid people similarly even though their contributions to the economy differ enormously. Brain surgeons, inventors and entertainers, they say, contribute hugely, while some people are fit only for the simplest work. Squeezing pay into a narrow range is thus unfair to the more capable, who are paid less than they deserve, and it also kills their motivation to work hard, to invest and to innovate. The only result, they claim, is equality in poverty.

① they, too, see fairness from only one narrow angle
② they agree that everyone should be paid the same
③ they care more about politics than the economy
④ they understand fairness better than socialists do
⑤ they refuse to reward anyone's contributions

5. 밑줄 친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qual opportunity to compete under identical rules does not, on its own, make a competition genuinely fair. We would hardly describe a race as fair just because all the runners set off from one starting point when some runners have only one leg or are blind in one eye. Real life works the same way. Even if everyone, in principle, may apply for any job they wish, the contest is not fair when certain contestants lack the minimum capabilities required. Some may have suffered stunted brain development through malnutrition in childhood; others may have received poor schooling after growing up in poor neighbourhoods where spending on education is below average. Unless all members of society possess these minimum capabilities, equal opportunity is meaningless.

① some runners have broken the rules of the race
② the starting line has been drawn in the wrong place
③ disabled people should not take part in competitions
④ some contestants have received special treatment
⑤ some contestants lack the minimum capabilities needed to compet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Back in the late 1980s, a friend of the author's from India used to fly home on Aeroflot, with ① his route passing through Moscow. The airline was reportedly awful in every way imaginable – comfort, punctuality, the cabin crew's attitude – yet many Indians stoically put up with it, as its fares were by far the lowest. According to ② him, the only in-flight meal on offer was pale, goose-bumpy, tasteless chicken. During one of ③ his trips on Aeroflot, ④ he heard another Indian traveller ask a flight attendant for a non-chicken option, since ⑤ he was, well, a vegetarian. The stewardess shot back that there could be no exception: on a socialist airline, all passengers were equal and nobody got special treatment.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Paying people according to what they contribute is a valid principle only if one important condition is met: everyone must have the chance to compete for the best jobs.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equal opportunity. This condition is far from trivial. In the past, many societies formally limited people's choice of education and jobs on the grounds of gender, caste, religion and race. Oxford and Cambridge, for example, admitted no non-Anglicans until 1871, and women had to wait until 1920 (Oxford) and 1948 (Cambridge) to receive degrees. Under South Africa's Apartheid, Blacks and 'coloureds' had to attend badly under-funded, crowded non-white universities, which made it nearly impossible for them to find decent jobs.

① 기여에 따른 보수 원칙은 전제 조건 없이도 타당하다.
②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1871년까지 비국교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케임브리지는 옥스퍼드보다 먼저 여성에게 학위를 주었다.
④ 과거의 공식 제한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⑤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흑인들은 재정이 넉넉한 대학에 다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Part of the discrimination may even come from people themselves. In many societies, subjects such as science, engineering and economics are widely regarded as 'masculine', and many talented young women 'voluntarily' avoid them even when their aptitudes would make them perfectly suited. When the author studied economics as an undergraduate in the early 1980s in South Korea, only six of his roughly 360 classmates were women, and only eleven women were among the more than 1,200 engineering students. No formal rule kept women out of these subjects, yet many bright female students chose 'feminine' ones such as English literature or psychology, having been socialized to believe these suited them better. Today, the author reports, women make up over 30% of economics students at his old university.

① 차별은 부분적으로 스스로 부과된 것일 수도 있다.
② 많은 사회에서 과학 · 공학 · 경제학은 '남성적' 과목으로 여겨진다.
③ 저자의 경제학과 동기 약 360명 가운데 여학생은 6명뿐이었다.
④ 오늘날 저자의 모교 경제학과 여학생 비율은 30%를 넘는다.
⑤ 당시 여학생의 공학 · 경제학 공부를 막는 공식 규정이 있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oday, most of these formal barriers ① have been removed, but no country has truly achieved equal opportunity. Women at work are denied the same chances as men because of the sexist view that they are less likely ② to place their careers above their families, if not the false and offensive view that they are naturally inferior to men. In schools, the labour market and workplaces, racial discrimination ③ remain widespread in every multi-racial society. Such societies favour less able members of ethnic majorities over more capable ④ ones from minorities, ⑤ giving the former greater opportunities than the latter.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stewardess's reply was, of course, an extreme expression of the Soviet idea that all people deserved identical treatment because every human being (A) [is / being] equally valuable. Whether a person was a minister, a doctor, a cleaner or a coal miner, each (B) [was / were] supposed to receive identical rations of bread, sugar and sausages, one pair of shoes a year and everything else through collective provision. That, however, was only the theory. In practice, not only (C) [were there / there were] considerable pay gaps between people, though far smaller than those under capitalism, but the political elite also enjoyed special treatment, from better housing to special stores selling better, often imported, goods.

	(A)	(B)	(C)
①	is	was	were there
②	is	were	were there
③	being	was	there were
④	being	were	were there
⑤	is	was	there wer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Poor chicken – nobody takes it seriously. The author knows of no culture that worships it the way Hindus revere the cow, and none that ① despises it the way Muslims and Jews view the pig. Some people ② avoid certain meats out of simple distaste rather than religious or cultural taboo, yet it seems that anyone who eats meat at all will also eat chicken. This universal ③ acceptance may be partly due to the bird's low profile: it is small and fairly ④ aggressive, not a hulking beast like a cow or a stubborn creature like a goat. Mainly, though, it must be explained by chicken's ⑤ versatility as a protein source, its rather neutral taste and how easy it is to cook.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ccording to free-market economists, the right response is to let individuals compete as hard as their talents allow and then to accept whatever the competition produces, even if the resulting spread of incomes strikes some observers as far too unequal. Such a system, they claim, is both the fairest and the most productive arrangement. It is the most productive because people will have the strongest possible reason to push their output as high as it can go. And it is the fairest because, under it, each person will be _____. Paying everyone within a narrow band, by contrast, would only bring equality in poverty, in their view.

① given the same income as everyone else
② paid in proportion to what they contribute to the economy
③ protected from the results of competition
④ rewarded according to their basic needs
⑤ guaranteed a job that suits their abiliti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Once we move beyond these basics, however, our needs start to differ quite quickly, and treating everyone identically becomes a problem.

The Soviet principle held that all people deserved equal treatment because every person is equally valuable. (①) Yet this approach to equality and fairness has a serious flaw. (②) Admittedly, every human being shares certain 'basic needs', such as clean water, safe shelter and nutritious food. (③) Seen this way, the socialist principle is a powerful indictment of feudal and capitalist societies – societies in which some people die of hunger while others live in extravagant luxury. (④) A vegetarian who is served chicken on a flight, for instance, is not being treated fairly at all. (⑤) Different needs call for different treatment.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f some people are barred, formally or informally, from even competing for the best schools and jobs because of traits unrelated to their ability, such as race, religion or gender, the result is neither the fairest nor the most productive. ① Equal opportunity is therefore vital. ② Imagine that some future society somehow manages to give everyone a truly equal chance to compete. ③ Hindus can eat pork but often choose not to, while many Koreans refuse lamb though they have no taboo against it. ④ Imagine, too, that everyone plays by the same rules, although in reality rules are often rigged, as with 'legacy' students, who are favoured in admissions to American universities since a parent or grandparent studied there. ⑤ Could we then accept any inequality such a society produced? Sadly, even then, we could no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ink about bread, which many societies rely on as a staple.

(A) But this is not fair if the bread is made from leavened wheat, which certain people cannot eat at all – perhaps because they suffer from coeliac disease, or because, as Jews, they are observing Passover.

(B) Likewise, equal-sized male and female toilets in a public building may look even-handed, since men and women each make up about half the population, but they are actually very unfair, because women require more time and room; hence the long queues outside women's toilets in cinemas and concert halls.

(C) During a severe food shortage, such as the Soviet Union's in 1928–35 after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or Britain's in 1946–8 after the Second World War, handing everyone the same daily amount of bread may seem fair.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arkets can be regulated in ways that bring about greater equality of outcome. Some regulations protect weaker economic players from stronger ones: Switzerland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reduce income inequality by sheltering small farms through limits on agricultural imports, or small shops through limits on large retailers. Inequality could also be lowered by financial rules, such as curbing high-profit but high-risk speculation, or by labour market rules, such as enforcing a decent minimum wage or raising sick pay. Yet Europe's very equal welfare states show that redistribution by the welfare state, whether by direct income transfers or by guaranteeing that everyone can equally use good-quality basic services like education, healthcare and water, is a more effective route.

→ Greater equality of outcome can be pursued by (A) _____ markets, but the experience of Europe's welfare states suggests that it is achieved more effectively through (B) _____.

① regulating ..... redistribution
② regulating ..... competition
③ deregulating ..... redistribution
④ deregulating ..... privatization
⑤ expanding ..... competition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n Indian friend of the author's used to fly home on Aeroflot, the Russian airline, which, according to the friend, served only chicken in flight. Oxford and Cambridge refused non-Anglicans until 1871; women received degrees from Oxford in 1920 but had to wait until 1948 at Cambridge. In the early 1980s, in the author's economics course in South Korea, only six of roughly 360 students were women. Some people cannot eat wheat bread because they have coeliac disease. Switzerland and South Korea protect small farms and shops in order to lower income inequality. The author argues that equal opportunity alone is not sufficient: a fairly high level of equal outcomes is needed as well.

<QUIZ>

(1) Which airline served only chicken in flight, according to the author's friend?

Answer for (1): _____

(2) Until what year did Oxford and Cambridge refuse to accept non-Anglicans?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Cambridge begin to award degrees to women?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women were in the author's economics course?

Answer for (4): _____

(5) What disease stops some people from eating wheat bread?

Answer for (5): _____

(6) Which country, along with Switzerland, protects small farms and shops to lower income inequality?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author thinks equal opportunity alone is enough?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71	N. South Korea
B. 1920	O. coeliac disease
C. True	P. Passover
D. eleven	Q. 1980
E. Moscow	R. Aeroflot
F. 1928	S. False
G. 360	T. 1948
H. Japan	U. Denmark
I. six	V. 1935
J. 1946	W. Aldous Huxley
K. malnutrition	X. 15%
L. Cyprus	Y. 30%
M. 1,200	Z. Khmer Rouge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힌두교도가 소를 숭배하듯 닭을 숭배하는 문화를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know of no + 명사 / 대동사 do)

02 닭을 깎아내리는 문화도 없다. (Neither + 도치)

03 나의 인도인 친구는 모스크바를 거쳐 Aeroflot로 귀국하곤 했다. (a friend of mine / used to V)

04 내 친구는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닭 말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overhear + O + 원형 / whether)

05 모두에게 하루에 같은 양의 빵을 주는 것은 공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동명사 주어 + sound + 형용사)

06 필요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동명사 주어 / 동명사 보어)

07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평등과 공정에 대해 똑같이 좁은 시야를 지니고 있다. (albeit)

08 우리는 개인들이 능력껏 경쟁하게 해야 한다. (let + O + 원형부정사)

09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각각 1920년과 1948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학위를 주었다. (not ~ until / respectively)

10 그들은 그 과목들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과거완료 수동)

11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영양실조로 뇌 발달이 저해되었을 수도 있다. (may have p.p. / have + O + p.p.)

12 그러나 우리는 극소수만 감당할 수 있는 표값을 대가로 여러 기내식을 내놓는 항공사를 타고 싶지도 않다. (neither + 도치 / at the cost of)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닭과 대비한 숭배 / 경멸의 동물	
취향으로 피하는 고기	
닭이 보편적인 주된 까닭	
한국의 닭 요리 두 가지	
저자가 닭 사시미를 먹은 곳	
Aeroflot 일화의 시기 / 경유지	
인도인들이 Aeroflot를 견딘 까닭	
소련의 배급 품목	
사람의 기본 욕구 세 가지	
식량 부족의 두 시기	
발효 밀빵을 못 먹는 두 경우	
큰 기여를 한다는 네 직업(자유시장 경제학자)	
사회주의 보수가 '똑같았던' 극단적 예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의 비국교도 / 여성 학위	
저자의 경제학과 / 공학부 여학생	

항목	답
공학 졸업생 중 여성(각주 iii)	
규칙 조작의 예	
가벼운 체급 복싱의 체중 범위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네 가지	
소농 · 소상점을 보호하는 두 나라	
불평등 논쟁이 놓친 두 가지	

4-3. 통합 사고 문제 — 1장과 12장을 잇는 자리

문제

1장에서 저자는 남아시아의 힌두교나 동아시아의 유교와 달리 이슬람 문화에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을 제한해 사회 이동성을 막는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썼고, 유교 사회에서는 장인과 상인의 아들은 관리 등용 시험(civil service exam)조차 볼 수 없었다고 했다(23쪽 ¶2). 또 올바른 경제 · 사회 정책은 어떤 문화에서든 발전과 기회의 평등 같은 좋은 것들을 북돋울 수 있다고 썼다(25쪽 ¶2). 12장에서 저자는 과거 많은 사회가 카스트 · 성별 · 인종 · 종교 때문에 교육과 직업 선택을 공식적으로 제한했다며 「Acorn」을 참조하게 했고(96쪽 ¶5), 공식 규정이 없어도 많은 여학생이 '남성적' 과목을 '자발적으로' 피했다고 썼다(97쪽 ¶1). 이를 바탕으로, 아래 96쪽 ¶4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o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1장과 12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장 또는 12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보수 원칙의 전제 조건: It is that everyone has the chance to try for the best possible jobs – namely, there should be equality of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